VACHERON CONSTANTIN

GENÈVE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19세기 자연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모험

2023년 9월 13일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19세기 자연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모험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바쉐론 콘스탄틴이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구성된 4가지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로 Metiers d'Art 컬렉션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갑니다.
- 탐험, 장인 정신, 기술력을 향한 찬가와도 같은 이번 시리즈는 1830년대 초 영국 선박 비글(Beagle) 호를 타고 전 세계의 대양을 누볐던 자연주의자들의 과학적인 발견에 집중합니다.
- 과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4개의 워치메이킹 예술 작품이자 인그레이빙과 미니어처 에나멜링 기법이 어우러지는 마스터피스로, 새틀라이트 시간 표시 기능을 갖춘 아이코닉한 인하우스 칼리버 1120 AT/1로 구동됩니다.

카보베르데(Cape Verde)에서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와 마젤란 해협(Straits of Magellan) 을 지나 희망봉(Cape of Good Hope)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담은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컬렉션은 탐험 정신과 과학적 발견에 대한 새로운 찬사로서 프랑소와 콘스탄틴이 과거 몸소 선보였던 끊임없는 모험의 정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이 열정적으로 발전시켜 온 이 철학은 수 세대를 거쳐 영속하며 풍부한 스토리와 감성을 전합니다.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19세기 자연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모험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이 이번에는 19세기의 저명한 자연주의자들과 함께 비글(Beagle) 호에 승선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수집가들을 초대합니다. 지리학자였던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Geraldus Mercator)를 기리는 의미로 선보인 1994년 Mercator 모델 이후로 2021년에는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익스플로러 시리즈, 이외에도 2018년 하늘을 정복하려는 도전을 예찬하는 Metiers d'Art 아에로스티어의 뒤를 이어 선보입니다. 1831년부터 1836년까지 전 세계의 여러 대양을 아우르는 모험 속에서, 과학 탐험가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기나긴 여정의 모든 구간에서 반짝이는 잎사귀가 달린 화려한 열대 식물, 컬러풀한 극락조, 이국적인 컬러의 나비, 꽃이 만발한 숲과 과일 나무, 매혹적인 야생 동물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수없이 많은 과학, 식물학, 동물학적인 인그레이빙과 드로잉으로 구현되어 자세한 묘사와 세련되고 컬러풀한 설명을 완성하였고, 그중 일부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시리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매뉴팩처 내에서 발전시켜 온 인그레이빙 장인, 에나멜링 장인, 기요셰 장인, 주얼러와 같은 장인들의 재능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 같은 다이얼을 제작함으로써 Metiers d'Art 컬렉션의 유서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피스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작하는 과정에 메종은 2가지 공예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0.1mm에 가까운 정교한 터치로 장식 디테일에 곡선과 깊이감을 부여하는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의 정확한 기법과 더불어, 불과 파우더를 자유롭게 다루는 마스터 에나멜링 장인이 섬세한 브러시의 끝으로 미니어처 마스터피스를 완성합니다. 41mm의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 위에 각각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4일의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림한 베젤과 상단에 스크류가 장식된 러그가 돋보이는 케이스의 실루엣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선보였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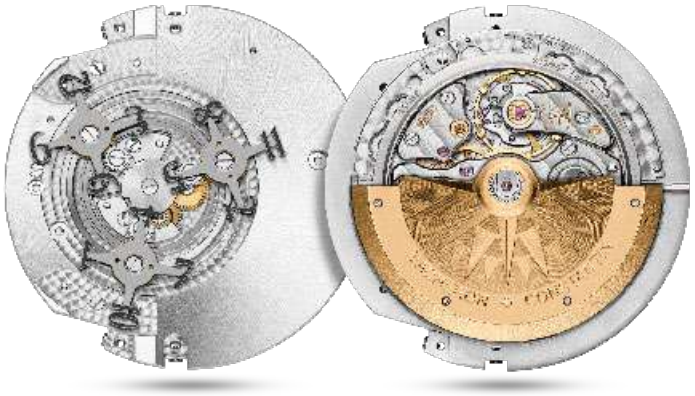
TECHNICAL DATA

칼리버 1120 AT/1

에나멜링 장인 및 인그레이빙 장인이 저마다의 기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바쉐론 콘스탄틴이 다시 한번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1120 AT/1을 선택했습니다. 손목에 우아한 감각을 더해 줄 두께 5.45mm의 무브먼트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며 골드 소재의 케이스에 두께가 단 11.68mm에 불과한 간결한 실루엣을 부여합니다.

독창적인 구조와 독특한 시간 디스플레이를 갖춘 만큼 기술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미학적인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이얼 위에서 펼쳐지는 시각적인 여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상단 아래에 감춰진 아워 휠에는 3개의 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암에는 매뉴팩처의 말테 크로스 엠블럼에서 영감을 받은 모양의 캠으로 회전하는 4개의 로마자 숫자가 차례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독창적이며 기술적인 새틀라이트 모듈이 장착되어 시간은 다이얼의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120° 아치에 고정된 미닛 트랙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통적인 핸즈 대신 아워를 표시하는 숫자가 예술적인 공예 기법이 장식된 다이얼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그 위치에서 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뒷면은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하이 워치메이킹 장식 기법에 경의를 표하는 꼬뜨 드 제네브 패턴과 윈드로즈 모양이 장식된 22K 골드 로터와 같은 마감 기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1832년 1월)

화이트 750/1000 소재의 직경 41mm 케이스 내부는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위층에는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링 기법의 조화로 비글(Beagle) 호의 장엄한 실루엣을 구현했습니다. 펄럭이는 돛이 달린 모습을 섬세한 인그레이빙으로 구현한 골드 컬러의 배가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구현한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아가는 광경을 선미에서 관찰한 듯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아래층 다이얼은 에나멜링 장인의 손길을 거쳐 우아한 기교와 매혹적인 컬러의 향연을 펼쳐보이며 꽃다발과 함께 잎사귀가 피어나는 이미지로 품격을 더했으며, 사파이어 케이스백에 자리잡은 창에서는 칼리버 1120 AT/1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0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 타임피스는 화이트 골드 750/1000 폴딩 버클을 갖춘 블루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1833, 1834년)

바다 위에서 몇 주를 항해한 비글(Beagle)호는 300년 전 이곳을 발견한 탐험가의 이름을 딴 마젤란 해협을 횡단했습니다.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한 해협에서 자연주의자들이 발견했던, 야자수와 양치 식물이 얽힌 풍부한 초목은 다이얼의 아래층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에나멜링 장인은 가마에서 수 차례의 소성 과정을 거쳐 조각 디테일이 자리잡은 41mm 케이스의 핑크 골드 컬러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섬세하게 구현해 냈습니다. 다이얼의 위층은 블루 에나멜로 구현한 파도 위에서 항해하는 비글(Beagle)호의 모습을 섬세한 화이트 골드 인그레이빙으로 구현하여 한층 우아한 매력을 더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에서는 섬세한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칼리버 1120 AT/1과 함께 시각적인 여정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10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 타임피스는 핑크 골드 폴딩 버클을 갖춘 블루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EVE
0
10
20
30
40
50
60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1833-1834년)

남미 대륙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제도인 티에라델푸고에서 비글(Beagle)호로 여행하던 자연주의자들은 매혹적인 동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들은 당시의 수많은 인그레이빙에서 영감을 받아 모든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직경 41mm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스에 담긴 다이얼의 위층에서는 미니어처 페인팅이 적용된 배경에 자리잡은 3D 나비와 두 마리의 새를 묘사한 인그레이빙 장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아래층에는 미니어처 에나멜로 티에라델푸에고의 고대 지형도를 재현하였으며, 이와 함께 여행의 세계를 기념하는 의미로 윈드로즈를 장식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칼리버 1120 AT/1를 구동하여 시간을 표시합니다. 10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 타임피스는 화이트 골드 폴딩 버클을 갖춘 그린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0 10 20 30 40 50 60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1836년 5월)

비글(Beagle)호가 희망봉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해안을 둘러 유럽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항해사들이 활용해 왔던 전설적인 항로는 다이얼 아래층에 미니어처 에나멜로 묘사된 해안 풍경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장식에는 비글(Beagle)호의 모든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인그레이빙 장인과 에나멜링 장인의 기술을 조합한 다이얼 위층에는 자연주의자들이 희망봉에 발을 들인 순간 마주했던, 에덴 동산을 닮은 풍경을 구현했습니다. 나뭇잎 사이에 자리잡은 새들의 섬세한 깃털은 느긋한 이구아나의 실루엣과 조화를 이룹니다. 직경 41mm 핑크 골드 소재의 케이스 중심부에는 자연주의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시계 뒷면에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칼리버 1120 AT/1의 정교한 마감 기법과 함께 계속해서 화려한 이미지가 이어집니다. 10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 타임피스는 핑크 골드 폴딩 버클을 갖춘 그린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19세기 자연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모험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이 마스터 장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감각이 깃든 타임피스와 함께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미학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수집가들에게 시간을 거스르는 새로운 여정을 선사합니다. 1830년대 초 영국의 비글(Beagle)호에 승선했던 19세기 자연주의자들의 과학적 모험에서 영감을 받은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컬렉션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 갑니다. 핑크 또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직경 41mm로 완성된 4가지의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번 컬렉션은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과 마스터 에나멜링 장인의 기술력의 조화로 전 세계를 누비던 자연주의자들의 발견을 이미지로 선보입니다. 수집가들은 시간, 역사, 과학을 아우르는 대서사시와 같이 카보베르데(Cape Verde)에서 마젤란 해협(Straits of Magellan) 과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를 거쳐 희망봉(Cape of Good Hope)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타임피스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1120 AT/1로 구동되며,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1/ 자연주의자라는 모험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의 Metiers d'art 컬렉션은 진귀한 고대의 공예 기법을 통해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담아내는 독창성을 지닌 워치메이킹 마스터피스를 의미합니다. 메종이 역사와 여행을 사랑한다는 점에도 이처럼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종종 이를 하나로 합한 "아에로스티어(Les Aerostiers)" 또는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익스플로러(Tribute to Great Explorers)"와 같은 테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비글(Beagle)호에 승선한 18세기의 "모험가"라는 선택은 화려한 워치메이킹 프레스코화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모두 모은 것입니다. 게다가 컬렉션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주제인 자연주의적인 맥락을 더했죠. 비글(Beagle)호라는 명칭 자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1939년 저서인 비글 호 항해기(The Voyage of the Beagle)는 더 유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책을 통해서 자연주의자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 다이얼 위에서 새로운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컬렉션의 다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Metiers d'art 컬렉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계 무브먼트를 활용하여 장인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이얼에 공간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하우스 칼리버 2460 G4/2 또한 그러한 무브먼트로서 디스크에 시, 분, 요일, 데이트가 표시되고, 창은 다이얼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칼리버 1120 AT/1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을 따르죠. 하지만 두께 5.45mm의 매우 얇은 무브먼트는 아치 형태의 미닛 트랙휘를 움직이는 시간을 표시하도록 다이얼 안에 3개의 시간 새틀라이트를 회전할 수 있는 슬롯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컬렉션의 모델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2개 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얼에서 끊기는 부분을 고려하여 배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제작 과정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결코 작품의 화려함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익스플로러(Tribute to Great Explorers)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후속 작품을 출시할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찰스 다윈과 그 동료를 주제로 한 워치메이킹 제품의 후속작이 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천구 Copernicus spheres celestes" 또는 "엘레강스 사토리얼 elegance sartoriale" 시리즈가 그랬듯 Metiers d'art 컬렉션이 항상 여러 챕터로 출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19세기의 자연주의라는 주제는 비글(Beagle)호의 항해, 그리고 20년 후 진화론으로 이어졌던 다윈의 발견과 아이디어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만합니다. 자연주의는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워치메이킹 스토리를 완성하는 풍부하고도 매혹적인 테마입니다.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Métiers d'Art Tribute to Explorer Naturalists

References	7500U/000G-B991: Cap-Vert - 1 7500U/000R-B992: Détroit de Magellan - 2
Calibre	1120 AT/1 Developed and craft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2K gold oscillating weight with tapisserie decor 28 mm (12 ½ ‴ diameter), 5.4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2.75 Hz (19,800 vibrations per hour) 205 components 36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Dragging hours, minutes
Case	18K white gold / 18K 4N pink gold 41mm diameter, 11.68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18K white gold, two-level dial, Grand Feu miniature enamel Hand-engraved 18K white gold applique
Strap	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 18K 4N pink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series of ten timepieces per reference.
Models available exclusively through the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1

2

소개

칼리버 1120 AT/1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카보베르데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마젤란 해협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티에라델푸에고

METIERS D'ART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케이프 오브 굿 홉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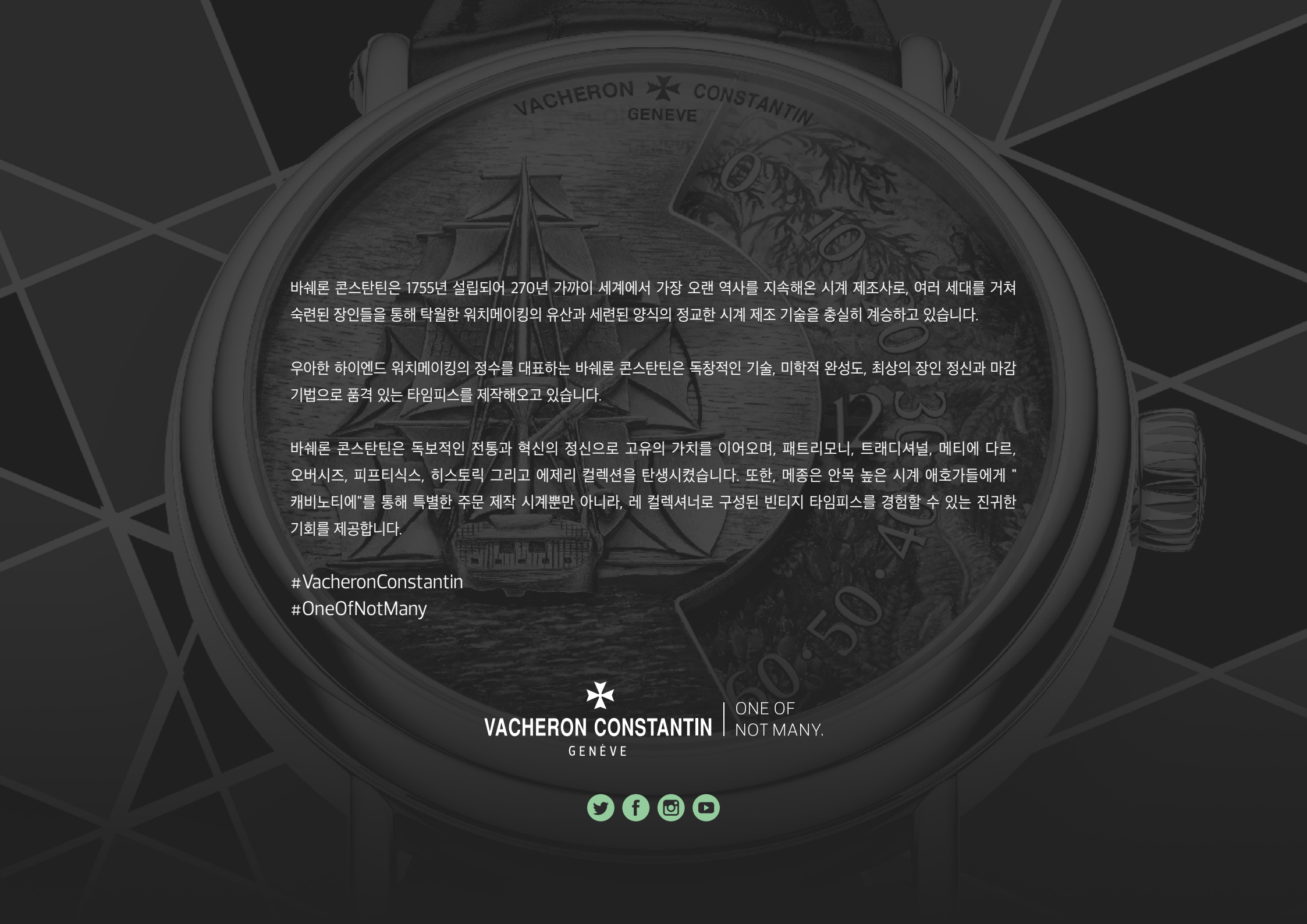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Métiers d'Art Tribute to Explorer Naturalists

References	7500U/000G-B993: Terre de Feu - 1 7500U/000R-B994: Cap de Bonne-Espérance - 2
Calibre	1120 AT/1 Developed and craft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2K gold oscillating weight with tapisserie decor 28 mm (12 ½ ‴ diameter), 5.4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2.75 Hz (19,800 vibrations per hour) 205 components 36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Dragging hours, minutes
Case	18K white gold / 18K 4N pink gold 41mm diameter, 11.68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18K white gold, two-level dial, Grand Feu miniature enamel Hand-engraved 18K white gold applique
Strap	Dark gree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 18K 4N pink gold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series of ten timepieces per reference.
Models available exclusively through the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